

#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수신자 : 교육부장관

참 조 :

(경유)

제 목 : 문·이과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1. 귀 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기초과학학회협의체는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회연합회로 구성되어 기초과학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조하고, 수학 및 과학 교육의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3. 기초과학학회협의체는 교육부가“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문·이과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4. 그러나 기초과학학회협의체는 현재 연구위원회와 연구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가. 연구진의 구성원이 거의 대부분“문과”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진정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에 부적절함.

나. 기본단위를 일괄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이미 부족한“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더욱 약화시킴으로써 교육과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통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다.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수학 및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경제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바, 실질적인“이과 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구위원회의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임.

5. 이에 따라 기초과학학회협의체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가. 연구위원회의 교육과정 개정안의 즉각 폐지.

나.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일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진정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6. 이에 대한 회신을 6월 9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우리의 의견. 끝.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회장 김 명 환



담당자 이나래 국장 박여진 간사 5/29 이종우

협조자

시행 기과협 2014-02 (2014.05.29.) 접수  
우 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202호 /  
전화 02-565-0361(내선 103) / 전송 02-565-0364 / kms@kms.or.kr

<http://www.basicscience.or.kr>  
/ 공개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기초과학학회협의체 의견

2014. 5. 29 기초과학학회협의체

기초과학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는 문·이과의 구분을 없애려는 최근의 교육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미래에 국가를 책임질 청소년들은 마땅히 미래에 필요한 소양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구성한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와 연구위원회의 최근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첫째, 연구위원 전원이 교육학 전공자이고, 90% 이상 문과 전공자로 구성되어 과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sup>1)</sup>

둘째, 연구위원회 개정안은 미래에 필요한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교육과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는 반대한다.<sup>2)</sup> 탐구과목(과학·사회)을 비롯하여 모든 주요 교과목의 필수 이수단위를 공통적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수학·과학 기피현상을 고려하면 결국 “이과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세계 각국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의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필요한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수학·과학 교육을 오히려 더욱 약화시키는 개정안은 결국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시대를 거스르는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는 한 창조경제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sup>3)</sup>

교육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편향된 구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진정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기과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과협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노력과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 / 대한수학회	회장 김명환
한국물리학회	회장 이철의
대한화학회	회장 최종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김경진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	회장 조규성

[주]

1) 심각하게 편향된 연구위원회의 구성

- 모두 교육학 전공자이고, 90%이상이 이과전공자가 아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구책임자는 초등교육과정 전공자이다.

순번	성명	소속	전공
1	김경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2	황규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3	김두정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4	김대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5	홍은숙	성결대학교 신학부	교육철학
6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7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
8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본부	진로교육
9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지리교육
10	송진웅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물리교육
11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의 하향평준화는 미래형 인재 육성에 먹구름

- 연구위원회 안은 문·이과 통합형 취지에 역행한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탐구과목(사회·과학)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개정안은 오히려 이를 축소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연구위원회 안은 절름발이 교육을 고착화 한다: 세계의 교육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수학·과학을 강조하는데, 현 개정안에서는 수학·과학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과정 역사상 가장 약화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과학 기피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문·이과 통합이 아니라 이과폐지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3) 수학·과학 교육 약화는 국가 경쟁력에 먹구름

- 세계적인 학력 평가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50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 성취도 평가는 읽기, 수학, 과학만을 평가한다. 이런 역량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라 인정하기 때문이다.
- 선진국은 과학교육을 강화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STEM 교육을 강조하고, 한해 3.7조원을 투자한다. 영국의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과학만을 핵심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 고등학교는 국·영·수는 각 10단위, 과학은 18단위를 가르친다.
-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이 결정한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수학·과학 교육에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
- 교육이 망가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지금 한국의 풍요는 과거 과학기술을 강조했던 교육의 결과다. 지금 수학·과학교육을 약화시키면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어두워진다.